즉시 배포용: 2018 년 8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인용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REGULATED ADULT-USE MARIJUANA PROGRAM)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그룹 임명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 1 월에 주지사가 조사를 의뢰한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회가 예정된 회기 내에 고려해야 할 성인용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regulated adult-use marijuana program)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임명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주도한 이 연구는 뉴욕주가 규제하는 마리화나 시장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규제와 주요 주민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교육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 월에 의뢰한 조사에 대한 여러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건부(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와 그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조치는 반드시 신중하고 사려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법안을 통해 보고서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공중 보건, 형사 사법 및 주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반드시 철저히 고려하여 잠재적인 모든 관련 위험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델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시간과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신 실무그룹의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 년 1 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규제하는 마리화나 시장이 건강, 경제, 형사 사법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주들의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뉴욕주에 미치는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regulated marijuana program)에 관한 연구를 보건부(DOH)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7 월 13 일에 발표한 보건부(DOH) 보고서는 뉴욕주가 규제하는 마리화나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리화나 규제 방안을 통해 마리화나의 생산, 테스트, 표시,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정부 감독을 허용하는 것이 공중 보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만들어지는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regulated marijuana program)를 통해 뉴욕주가

면허를 보다 잘 관리하여 품질 관리를 보장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구입가능한 연령과 수량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규제 프로그램이 범죄화 및 구금 비율의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고, 이전의 마리화나와 관련된 낮은 수준의 범죄와 연관된 개인의 범죄 기록을 봉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주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 그룹을 만들 것을 특별히 권고했습니다.

실무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행정부(Executive Branch) 및 이해 관계자들과 공조하기 위해, 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 고문이 실무그룹을 감독하게 됩니다. 실무그룹은 공공 보건, 공공 안전 및 경제 전문가 그리고 관련 주정부 기관의 리더들을 비롯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실무그룹은 주의회 상원과 하원의 리더들과 더불어 의료 및 마리화나 규제 법안의 후원자들(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 Richard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 Liz Krueger 뉴욕주 상원의원, Crystal People Stokes 뉴욕주 하원의원), 옹호 단체 그리고 뉴욕 대학교 마론 도시 관리 연구소(NYU Marron Institute of Urban Management)의 Mark Kleiman 공공 정책 교수,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Beau Kilmer 수석 정책 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다른 주 출신의 노련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실무그룹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공중보건대학(School of Public Health) 학장 David Holtgrave 박사
-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연구 부학장 R. Lorraine Collins 박사
- 롱아일랜드 가족 및 자녀 협회(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최고경영자인 Jeff Reynolds 박사
- 전임 올버니 경찰청장 Brendan Cox
- 뉴욕 대학교 마론 도시 관리 연구소(NYU Marron Institute of Urban Management) 공공 정책 교수 Angela H. Hawken 박사
- 뉴욕 대학교 스타인하트(NYU Steinhardt) 미디어 컬처 커뮤니케이션 부교수 Natasha Schüll 박사
- 법률 대응 센터(Legal Action Center) 부소장 Tracie Gardner
-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교수 Chinazo Cunningham 박사
- 주지사 법률 고문 Alphonso David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
- 예산 담당관 Robert Mujica
- 뉴욕주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 Lourdes Zapata
-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 Ann Sullivan 박사
-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

-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커미셔너 대행 Sheila Poole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 대행 Paul Karas
-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
- 조세재무부(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 대행 Nonie Manion
- 뉴욕주 농업시장부(Agriculture and Markets) 커미셔너 Richard A. Ball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커미셔너 Howard Zemsky

성인용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regulated adult-use marijuana program)은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불필요하게 법에 얽혀버린 비폭력자의 수를 줄이고, 기록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에 따라 구축될 것입니다. 2012 년부터 주지사는 공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행위를 경범죄가 아닌 위반으로 취급하는 법안을 두 번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2014 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특별 배려 복지법안(Compassionate Care Act)에 서명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주지사는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